



시심마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시심마(是心非), 이 무엇인가! 예술가의 창작활동이란 바로 '이 무엇'을 찾아 예술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즉 형이상(形而上)의 추상내용을 형이하(形而下)의 예술작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창작활동의 목적은 바로 자기실현에 있으며 그 바탕은 '창작성' '새로움'에 있다.

수행이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듯이 창작활동 역시 '그 무엇'을 찾아 예술형상으로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다. '깨달음' '그 무엇' '새로움'에 대한 정기는 속박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언제쯤이냐 이 원대한 공부를 벗고 '그 무엇'을 찾아볼 수 있을까. 지금 이 생각을 하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굴레를 쓰고 있

언제쯤 얽매인 굴레에서 벗어날까

나 과학기술에서도 창작성(이 무엇)의 특성은 '새로움', '신기성'에 있으며, 선(禪)의 목적 역시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있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현상을 찾아내려 하고 예술가는 창작활동을 통해 '그 무엇'을 드러내려 하며, 선가(禪家)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여 깨달음을 얻고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본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새로운 것, 창작성을 위하여 선승(禪僧)은 고행과 명상을 하며 예술가는 사색과 탐구에 정진하는 것이 아닐까?

는 지도 모르겠다. 나는 나의 그림에 영상에 잠긴 수행승의 모습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무엇'이 아니며, '그 무엇'을 찾고 있는 영상을 표현해 줌으로써 그와 가까워져 보고자 할 따름이다. 즉 영상을 받아 영상을 찾아 보고자 함이다. 그들은 '불안의 장나루' 등 막대기를 보고도 깨달음을 얻었다. 내게 나는 '그 무엇'은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 찾는다. 그러다가는 속박까지도 벗어내려야 하는데, 버린다는 것 또한 쉬운일이 아니니 오늘날 이 굴레 속에서 헤매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김대일 (화가, 덕림미술관장)

뒷산 울창한 숲에서 ①

주부신행담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결혼 후부터였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일제 말기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패색이 짙어지자 우리나라의 남자 청년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을 학도병으로 여자전문학교 학생들을 정신대에 의무적으로 지원할 해아 된다는 무서운 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 막았다. 막막하고도 두려운 현실에 부딪혔지만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다.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적당한 조건이 맞는 청년들은 대개 학도병으로 끌려가야 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경성시 중요하다고 여겨온 성격이나 종교관등을 맞추어 결혼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처지였다.

결혼해서 처음 자리잡은 곳은 양주군 별내면 깊은 산골 과수원 집 아래채의 초라한 단칸방이었다. 그곳은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의 첫출발점치고는 너무도 삭막하고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부엌은 영적으로 바람막이를 한 채 까만 솔하나 걸려있고 찬장은 사과계곡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또한 열탕이라곤 방충이를 달린 것 뿐이었다. 가사일에 전히 손대보지 않은 나로서는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진실하고 진지한 구도자였던 내 남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에 이끌려 신혼의 단골은



남편은 항상 '현실은 마음의 그림자'라며 '무일물생활'을 주장했다 세월은 흘러 우리가족의 일과는 새벽예불로 시작됐다

잡어뜬채 불린, 불만, 추위를 참 거름도 없이 긴장된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이것까지도 좋았다. 그런데 더 건디기 힘든 것은 '무일물생활(無一物生活)'을 주장하는 남편의 고집이었다. 남편은 항상 '현실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정진하라는 것이었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생활을 꾸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 어찌 남편의 힘에 이끌려 살아온 그 세월동안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왔다는 사실이었다. 가정불교 신령에 제법 흥미가 있는 우리 가족의 일과는 새벽 예불부터 시작됐다. 개경계로 시작해서 반야심경 관음경 법화경의 여러수람을 계속 사문서원으로 끝을 맺는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됐다. 황금같은 새벽을 이처럼 보람있게 열면서 하루가 시작되며 저녁때에는 아이들과 한 방에

이 어찌 남편의 힘에 이끌려 살아온 그 세월동안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왔다는 사실이었다. 가정불교 신령에 제법 흥미가 있는 우리 가족의 일과는 새벽 예불부터 시작됐다. 개경계로 시작해서 반야심경 관음경 법화경의 여러수람을 계속 사문서원으로 끝을 맺는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됐다. 황금같은 새벽을 이처럼 보람있게 열면서 하루가 시작되며 저녁때에는 아이들과 한 방에

서 경을 비롯한 불교서적을 탐독하면서 아이들 공부도 지도했다. 남편도 귀기하면 조용히 정화하며 분위기를 이끌어 주었다. 일요일에는 언제나 가족법회를 가졌다. 남편은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마음껏 꺼내쓰자'며 사람의 능력이나 재건의 근원은 마음속에 있다고 강조하곤 했다.

그리고 그 '힘'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불씨'에 거름을 주며 알차게 영글어 가도록 지켜보았다. 이런 정성이 있어서인지 아들 삼형제는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종교대학과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같이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때 남편은 나에게 자식들에게 너무 '착'을 쓴다고 충고했다. 나는 이에 자극을 받아 절에 나가기 시작했다. 학승인 주지스님 밑에서 초발심자경문을 시작으로 천수경,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원각경, 온경경, 등을 읽고 외우고 또는 사경을 하였으며 육조단경은 경 읽기로 특강을 받으려 했다. 그 외에도 고행의 스승을 찾아가 법문을 듣고 강단하며 불교에 대한 지식을 넓혀갔다. 나는 이것이 지혜를 밝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었다. 학승수행 (천안 육상산 천원 생활사)

A pupil should minister to his teachers as the southern quarter in five ways, by rising from his seat to salute them, by waiting upon them, by his eagerness to learn, by personal service, and by respectfully accept their teaching. 제자는 스승에게 다섯가지 방법으로 봉사해야 한다. 인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남으로써, 스승의 시중을 들으로써, 열심으로 배우고자

They provide for his security everywhere. 이렇게 제자로부터 남방으로 받아들여진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선생경 ① 들어진 스승은 제자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다섯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들은 제자를 잘 교육한다. 그들은 제자가 배운 바를 잘

알아듣게 한다. 그들은 모든 분야의 학문에서 철저하게 제자를 지도한다. 그들은 제자를 자신의 친구나 동료들에게 소개해 준다. 그들은 어디서나 제자의 안전을 제공한다. A wife as western quarter should be ministered to by her husband in five ways, by respecting her, by his courtesy, by being faithful to her, by handing over authority to her, by

providing her with adornment. 남편은 다섯가지 방법으로 아내에게 서쪽방향을 모시해야 한다. 아내를 존중함으로써, 예의를 지킴으로써, 아내에게 충실함으로써, 아내에게 권위를 줌으로써, 아내에게 장군권을 줌으로써. 'salute' 인사하다. 'courtesy' 공손, 정중, 예의. 'love' (진중적인) 사랑, 애호. (박미영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Landrobar shoes. The top part features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rugged, mountainous landscape with a pair of Landrobar boots in the foreground. The boots are dark with a prominent tread pattern on the soles. Below the image, the text '랜드로바 20%세일' is written in large, bold, white characters on a dark background. At the bottom, there is a promotional banner with details: '기간: 3/17 금 ▶ 3/26 일', '대상: 신발 및 의류 전품목 (랜드로바, THINK PINK), 일부 잡화 제외', '장소: 랜드로바 전국지점 및 대리점', and '세일기간중 구입하신 제품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The Landrobar logo is visible in the bottom right corner.